

문화산책

박성언

음악감독



조심하기보다 다쳐버리자(예술가의 성찰)

뮤지션의 음악성이나 기량이 정신과 육체에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 고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신체와 정신의 무수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뮤지션 마찬가지로 라이브 연주를 하거나 난이도가 있는 예술작업을 수행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음악을 하면서 경험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 어느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새롭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어찌며 기준 것들의 또 다른 조합일 수도 있다. 나는 성격적으로 조심스럽게 조용히 지나치거나 관망하기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뛰어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강한 편이다. AI에게 질문해 보니 도파민 증독이라고 말한다. 끊임하지만 도박증독이 아닌 게 어디냐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한다. 어쨌든 나는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편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은 철저히 무감하다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저럭 취미생활로 음악을 하고 즐기며 지내는 생활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음악을 통해 예술가로서 자신의 내면 이야기와 미감을 표현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꽤나 많은 경험과 차이면서 생기는 상처와 그것이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경험은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승화시키고 성장을 이루는 선물을 통해 예술로 표현되어 나온다. 신은 인간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지만 그 선물은 고통의 상자에 포장되어 배달된다. 아픈 포장지를 힘들게 뜯어내지 못하면 상자 속 성장을의 선물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요즘은 음악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어서 감각이나 기량에 상관없이 서류나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듯하다. 개인이나 하나의 사업체가 되어 행사를 많이 하고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만 윤락한 삶이 유지되는 현대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도 예술 혼을 불태우며 살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의 얼을 생각하면 나부터도 부끄러워지는 맘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대학생들을 하면 20대 때에 어떤 교수님께서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돈을 써야 해서 음악 하기 힘들고 돈을 너무 적게 벌면 돈을 더 벌어야 해서 음악 하기 힘들다고 했던 말씀이 생각난다. 그래서 간혹 들려오는 예술인 기본 생계비용 지원 정

책 같은 소문은 참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진솔하고 노력하는 예술가에게 이런 지원금은 최소한의 예술지원자본으로 작용하고 그것을 통해 작품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바꿔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 줌으로써 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고 특정한 경우에는 삶의 태도도 바꿀 수 있다. 죽을 날을 항해하고 있는 한 번뿐인 우리의 삶에서, 돌아갈 수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속 물을 주지만 그 선물은 고통의 상자에 포장되어 배달된다. 아픈 포장지를 힘들게 뜯어내지 못하면 상자 속 성장을의 선물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

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거나 사람들과 공유할 때 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어느덧 2025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또한 모두 손길 같이 지나갔다. 열심히 살아나가는 많은 음악인들과 예술가들을 응원한다. 그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고통의 상자 속에 담긴 성장을 선물처럼 올해에 겪은 힘들었던 일도 내년에는 기쁨의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다쳐버리고 아파버리자. 상처가 아물어 가며 더 강해지는 자신을 사랑하자.

개으른 이불을 걷어차며 깜깜한 새벽의 무등산을 오른다. 혼자일 것만 같은 깜깜한 산속을 오르다보면 그 새벽에도 산을 내려오는 분을 만나게 된다.

앞서가는 사람은 어디에든 있다. 2026년에는 더 다치고 아파버려야겠다. 그리고 꼭 나아버려야지!

기고

이광일

전남도의원



석유화학 산업, 위기 넘어 미래 혁신으로 나아가야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 현실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다. 전통적인 대량생산 중심 체제가 '고부가·친환경 소재 산업 전환'에 진입했다는 신호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탄소중립, 플라스틱 순환경제 등 새로운 국제 규범이 정착되며 산업 자체가 구조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포럼에서도 여전히 전문가들은 "이제는 양적 확장보다 기술 혁신과 고도화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여수산단의 역할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결정적이다. 여수산단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이자 수출 거점이고, 정유·가스·자동차·전자 산업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설비 노후화, 인력 수급 불안, 안전 리스크, 투자 위축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다. 탄소규제 대응 기술 지원, 신사업 투자 유도, R&D 강화, 산업단지 재편과 안전시설 현대화 등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산업부, 지자체, 국회, 기업이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경쟁 속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 역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도의회는 산업

구조 고도화, 국가산단 기반시설 현대화, 안전 규제 강화,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 광역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현장의 의견을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기업, 연구기관과의 협의체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도의회의 역할이 될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이 변화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기존 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여수산단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전남도의회가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혁신은 곧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지역 산업을 단순한 제조 거점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실험과 혁신의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한다. 석유화학 산업은 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바이오·첨단 소재 산업과 결합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산단의 안전과 환경을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과 신소재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일은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산업 변화에 가장 먼저 대응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현장이 바로 여수산단이어야 한다.

취재수첩

건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윤용성

사회부 기자



란 잔불이 꺼지지 않은 가운데 계엄이 남긴 수령에 허우적대고 있다.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장본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과와 반성을 전제 없고, 이들의 추종 세력들은 내란을 여전히 응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무모한 돌발행동 때문에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모두 깨졌다.

그러나 지난 1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일상을 회복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무너진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솔한 반성과 죄신을 통해 차근차근 쌓아야 한다.

이제는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안전 장치를 확고히 구축해야 할 때다.

그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광장으로 나선 용기와 연대가 헛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자각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반헌법적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빛의 혁명'이 지켜낸 민주적 질서가 다시 한 번 확고히 서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칙결하고 자유현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 말이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그의 말과 행동은 국민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었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둘린 초유의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광주시민은 45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으로 이뤄낸 민주주의가 유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다행히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었고, 국회는 다음날 오전 1시 3분께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150여분 만에 불법 위헌 계엄 사태를 법적으로 해소했다.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내

독자투고

겨울철 복병 '블랙아이스' 주의

겨울철에 접어든 가운데 도로 위의 불청객인 블랙아이스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한다.

생소할 수 있는 블랙아이스란 새벽 또는 밤사이 기온이 급강하 하면서 녹았던 눈이나 빙울이 아스팔트 도로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틈새에 스며들어 밤사이 얼어붙은 현상을 말한다.

문제는 블랙아이스 구간이 단순히 도로가 조금 젖은 정도로 칙각하기 쉬워 육안식별이 어려운 살얼음이끼는 현상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블랙아이스 현상은 염화칼슘이나 눈과 결합하면 도로위에 남아있던 수분이 도로 표면을 미끄럽게 하는 슬라이딩 효과가 발생해 더욱 찾아진다고 한다.

때문에 블랙아이스 현상은 염화칼슘이나 눈과 결합하면 도로 표면을 미끄럽게 하는 슬라이딩 효과가 발생해 더욱 찾아진다고 한다.

블랙아이스 발생 도로는 일반도로의 14배, 눈길에 비해 6배 정도 더 미끄럽다고 하니 주의를 해도 엄살은 아닐 것이다.

겨울철에는 자신의 운전기술과 경력을 맹신하지 말고 항상 서행하는 습관을 기르고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하는 등 나와 가족이 안전한 겨울철 운행을 바란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장

사설

지역 미래 먹거리 예산확보 '눈에 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 정부예산에 각각 3조9497억원, 10조424억원을 반영시킨 것이다.

광주는 올해 3조385억원보다 5639억원(16.6%)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 증가율 8.1%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전남은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는 올해 9조502억원보다 9540억원(10.5%)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특히 인공지능(AI)·우주·에너지·미래차·AX농업·문화·SOC 등 지역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 대부분이 반영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먼저 광주는 그토록 간절히 요구해 왔던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는 산업 예산들이 대거 반영됐다.

1순위인 AI분야에서는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용역비 6억원, 규제프리 광주 AI실증도시 실현 용역비 5억원, AX 실증밸리 조성 296억원,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192억원, GIST AI 영재학교 설립 관련 건축·운영비 31억4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차 분야는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617억원,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기반 구축 24억원 등을 확보해 광주가 글로벌 미래 차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빛의 혁명'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5·18 대표 사적지 구묘역을 K-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빛의 혁명 발원지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7억1000만원, 5·18 당시 희생자를 기리고 미래세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옛 광주직접 자방원 보존 및 활용사업' 4억4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도 우주·에너지 산업 등 미래산업 예산을 확보했다.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을 위한 정부 출연금 250억원, 그리고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비 120억원이 반영됐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미스터플랜 수립비 5억 원, 무안 농업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센터 구축한 설계비 45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국비에 반영된 사업, 특히 미래 먹거리산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지역 청년 수도권 이탈 속사정 들여다보니

광주·전남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분석자료들이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 청년들(15~39세)이 수도권을 포함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 평균소득이 20.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평균 28% 오른다. 2022년 평균소득 2282만원에서 2023년 2922만원으로 640만원(27.8%)이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22년 2664만원에서 2023년 3405만원, 여성은 1883만원에서 2418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특히 여성은 수도권 이동시 소득이 28.4% 늘어나지만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 10.0%만 증가했다. 수도권이 사실상 여성들의 '유일한 선택지'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면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남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경우는 소득이 12.0% 증가해, 수도권 이동시보다 무려 16%p 낮았다.

이 때문에 지난 2023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인구는 1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이 떠난 광주·전남 고용시장도 그리 좋지 않다. 주력 산업의 정기별황 등으로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전체의 37.5%로 타 광역시 평균(43.4%)을 크게 밟았다.

이는 대기업을 비롯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소득·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경쟁력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 석유화학·석유경제·철강 산업 부진과 건설업 임금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산업 구조도 고령 인구위주의 농·수산업인 탓에 청년층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한다. 광주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고속면·전문직 일자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전남은 스마트농업 지원과 농업·농업·문화·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고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밸 행 인</